

서육 제47대 국방부 장관 취임

서육 제47대 국방부 장관이 9월18일 국방부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중점 국방 운영 사항으로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알 속의 병아리와 어미 닭이 껍질을 깨트리기 위해 안팎에서 쪼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줄탁동시(口卒啄同時)’를 언급하면서 “큰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안과 밖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노력



해야 한다는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모두가 의지를 갖고 함께 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 서육 국방부 장관 프로필 △1963년 광주 출생 △광주 인성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41기 △31사단 햇붙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차장 △25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48대 육군참모총장//

원인철 제 42대 합참의장 취임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공군대장, 공사 32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어떠한 위해도 대응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의장은 9월23일 합참 대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쟁 억제 및 전승 보장”을 지휘목표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첨단 군사역량을 강화하며, 유리한 전략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는 우리 군과 합참이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시 경계작전의 완성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

고 강조했다.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첨단 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전략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시키고, 맞춤형 국제군사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과 우리 군의 군사력에 걸맞은 군사안보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6회 한미동맹포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이 7월1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러햄스 한미연합군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주한미군전우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생활·문화·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포괄적으로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해리스 대사는 “항구적인 한미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돼 수십 년간 굳은 의지로 강화됐고, 양국 관계의 핵심축린치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여러분의 깊은 열정과 의지에 감사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온 철통 같은 이 관계를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안보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도 과거의 군사적·외교 정치적 등 안보 측면을 떠나서 지금은 경

문 대통령 광복 75주년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주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방역협력·공유하천의 공동관리·보건의료·산림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이루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확정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8월28일 정경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7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대구시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4년 만에 이전부지가 정해졌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공항 터미널·군 영외관사(군위군), 농식품 산업클러스터·신공항 관광문화단지(의성군) 등의 인센티브를 담은 경상북도과 대구시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날 선정위 의결에 따라 대구시는 통합신공



항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은 오는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신공항 부지 최종 확정과 관련, 국방일보에 보낸 특별기고문에서 “신공항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군 전력의 대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Ⅱ호 궤도 안착

우리 군의 첫번째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Ⅱ호 (ANASIS-Ⅱ·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Ⅱ)’가 7월21일 오전 6시30분(미국 동부 현지시간 20일 오후 5시30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아나시스 2호는 7월31일 10여일의 궤도 이동을 통해 0시쯤 3만 6000km상고의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정지궤도에 안착한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중계기 동작



과 제어 등 성능시험을 거친 뒤 10월쯤 군에 인수될 예정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 앞으로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김차장은 이번 개정에서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며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시제기 최종 조립 돌입

방위사업청은 9월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이 최종 결합단계에 이르러 한국형전투기의 도입이 한 발짝 가까워졌다. KF-X 시제기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대한 우려가 컸던 에이사(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개발 사업은 순항 중이다. KF-X 시제 1호



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 개발 AESA 레이더 드디어 첫선

한국형 전투기 KF-X의 '눈'이 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8월7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했다. AESA는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능동 전자주사식위상배열'이다.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KF-X의 눈이다. 잠자리의 눈처럼 1000여 개의 작은 레이더 파를 송수신하는 소자(TR 모듈)로 구성된 것이 AESA 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모듈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안테나만 작동하는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의 조종사는 이 1000여 개의 눈을 통해 한꺼번에 적 전투기 여러 대를 식



별하는 동시에 지상 등 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편대로 비행할 경우 사실상 전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테나장치, 송수신 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 AESA 레이더는 KF-X 장비 가운데 최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고된 AESA 레이더 시제품은 KF-X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인도된다. 이어 KF-X에 탑재한 상태로 체계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활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부활호'는 6·25전쟁 중인 1953년 6월 초 공군기술학교 정비교육대 교관·조교들의 비행기 설계제작 실습과 경비행기 국산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공군기술학교장 김성태 대령의 경비행기 설계제작 지시를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공군소령이었던 이원복 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20여 명의 작업반원들이 미국산 L-16 연락기의 엔진, 프로펠러, 강착장치, 계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 구성품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제작해 우리나라 최초의 2인용 프로펠러 경비행기 '부활호'를 완성했다. 1960년까지 연락기와 연습기로 사용하던 '부활호'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경상공업고등학교 지하창고에 밀폐·보존된 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가 2003년 12월 중앙일보 '부활 항공기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경상공고 퇴직자의 제보로 2004년 1월 발견됐다. 2004년 4월 공군은 남아 있는 기체를 수습한 뒤 최초 설계자였던 이원복 교수 등의 조언을 받아 복원에 성공했다. 2008년 부활호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411호로 지정됐다. 현재 부활호는 공군사관학교 야외 항공기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공군사관학교(공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가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고 7월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활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지원 아래 보존처리, 교육자료 및 콘텐츠 제작, 전시 등에 활용된다.//

제대 군인 대부금 이율 연 1.5~5.5%로 대폭 인하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제대한 군인들을 위해 대부금 이율이 낮아진다. 국가보훈처는 9월15일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였으며, "개정안은 9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에서 연 1.5~5.5%로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는 종류별로 이

율이 1%씩 인하돼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을 맺은 전국 329개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시작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역 편입신청이 7월30일 시작됐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날 "지난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편입 희망자는 입영일 혹은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

상) 등이다. 민원 서식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mma.go.kr/simsa/index.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편입 여부는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됐다. 병무청은 "심사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전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올해 초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면서 1년 만에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

된 이번 연합지휘소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제한된 여건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미측 증원병력의 전개가 제한됨에 따라 규모를 조정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연례적으로 시행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장병라운지 북카페 개관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역까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열었다. 7월29일 지하철 강남역 지하 3층 갤러리 카페 G아르체 안에 문을 연 '전우장병라운지-북카페'가 그것. TMO의 여행장병라운지와 비슷한 성격인 이곳은 약 600㎡(180평) 규모의 공간에서 현역 장병들이 무료로 커피를 마시며 비치된 책을 읽고 전시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예비역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또 3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국방부 퇴직자·예비역들의 모임으로 전



우장병라운지-북카페를 운영하게 될 M-피플협동조합 관계자는 "장병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까지 국군문화진흥원 등 많은 단체에서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작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인 만큼 많은 장병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군인유족연금 이전 청구 기간 확대

국방부는 7월 1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매달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구한말부터 내려오던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7월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 제도를 없애는 대신 감봉,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 병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병사의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으로 구분돼 왔다. 이 가운데 영창은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급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을 뜻한다. 하지만 영창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창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벌로서 징역이나 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징계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 행위별로 세분화된 징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연천에 제3 국립 현충원 추진

경기도 연천군에 추진 중인 제3 국립 현충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9월14일 연천군에 따르면 신서면 대광리에 93만9200㎡ 규모로 추진 중인 제3 국립 현충원 조성 사업이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를 위한 비용 59억 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연천 국립 현충원은 980억 원을 들여 모두 5만 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며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연천군은 육군5사단 신병교육대가 이전한 뒤 경제가 침체한 지역에 국립 현충원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학 회원 ‘군사사학으로 본 6·25 전쟁사’ 출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 ‘군사학 박사 1호’ 이종학 회원(예 중령,공사 3기,서라벌군사연구소장, 충남대 특임교수)이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군사학에 대한 왕성한 집필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원은 최근 ‘군사사학으로 본 6·25 전쟁사’(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를 출간했다.

포항에서 태어나 동지상고(현 동지고) 제1회 졸업생인 이 회원은 국내 최초로 군사학 체계를 학문으로 정착시킨 ‘군사학의 태두(泰斗)’로 평가받는다.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서 역사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 만학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국방대학원과 충남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평생 전쟁과 관련된 군사학 강의를



해 왔다.

군사학 명예 1호 박사인 이 회원은 30여년 동안 서라벌군사연구소(경주시 평동)에서 군사학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하면서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로 출강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안재봉 회원, 하늘사랑장학재단에 1천만원 쾌척



본회 안재봉 회원(예 준장, 2사5기, ㈜한화시스템 고문)이 8월11일 공군하늘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안회원은 2016년 8월 한화시스템에 입사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지원 TF를 맡고 있으며, 군사교리 발전과 전략기획 분야에서 활약해온 최고의 군사교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지난해 6월 안회원이 출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

리’의 인지세로 안 회원은 이 책을 통해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결프전쟁 이후 발발한 현대전의 수행 원리와 우리 군의 군사기본교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군사 교리와 군사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방 분야 베스트셀러로 각광 받은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는 국방부가 선정한 ‘2020년 1/4분기 진중문고’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군ROTC장교회 회장단, ROTC후보생 격려 방문



공군 ROTC장교회(회장 김형구) 회장단 13명은 7월24일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하계 임영훈련중인 공군ROTC 48기 138명과 49기 122명의 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단은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장학금 3명과 공군ROTC 장교회 장학금 3명 등 총 6명(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출신 각2명씩)의 ROTC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호원 회원 20년 만에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업

본회 안호원 회원(만 71세)이 지난 8월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지 20년 만에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본회 보라매지에 고정으로 수필을 기고 중인 안 회원은 그동안 시인, 수필가, 화가, 연극인, 방송인, 언론인, 칼럼니스트, 경비행기 조종사, 교수, 목사, 가수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20년 동안 한 학기도 휴학하지 않고 학기마다 등록해서 공부에 도전했다는 것. 안 회원은 2001년 한 뉴스 전문채널의 의학전문기자 생활을 끝으로 공식 은퇴하고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개척교회 담임목사직에서도 은퇴 했다. 그가 방송통신대 문을 두드린 것은 50대 초반인 2001년의 일이다. 이미 기성 시인,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글 쓰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마침 법무부 청소년분과위원으로 비행청소년 상담을 맡은 게 인연이 되어 기왕이면 법을 공부하고 싶어 2013년



법학과 편입을 결심하게 된다. 그 후 금년 8월 마침내 모든 학점을 이수하여 20년 만에 졸업하고 지난 9월 2학기에는 청소년교육과 3학년에 또 다시 등록하여 배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빈자(貧者)의 등불’이란 소리를 듣는 안 회원은 사회봉사 활동 50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학을 공부하는 만학도이기도 하다.//

박병철 감사 국방부장관 감사장 받아

본회 박병철 (예 대령, 학사 70기, 한국교통대 교수)가 8월28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박감사는 지난 3년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전 부지 선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김만조 회원 국방전우신문 사장 취임

본회 김만조 회원(예 중령, 학사70기)이 최근 국방전우신문 사장에 취임했다.

국가유공자인 김 회원은 1971년 월남전에 참가하여 5전비 C-54 공수지원단 작전(주월사 은마부대)에 활약한 바 있고, 올해(2020년)부터는 국방전우신문 사장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영등포구 지회장(공법단체)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 출입기자로 활약하면서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열정을 쏟으면서 다방면에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방전우신문은 민관군 1천만 전우가족 대변지로서 나라사랑, 전우사랑을 경영방



침으로 청와대, 국회, 각 안보단체 및 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예비역을 대상으로 12만부를 발간 배부중에 있다.//